

한국음악교육학회 2024 춘계학술세미나 보고서 2024 Spring Conference Report

김유진*

You Jin Kim

2024년 2월 24일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춘계 학술세미나는 ‘초등 교과에서 음악 교과의 분리’라는 현안을 학술적 견해에서 성찰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실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목표와 의미가 있었다. 서양음악과 국악의 교육,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이번 학술 세미나는 다양한 시선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을 조명하고 더 나아가 비전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인 주대창 교수는 초등 교과 저학년에서 음악 교과 부재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안임을 강조하며 음악적 개념과 기능이 없는 통합교과 내의 음악 교과가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조력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합교과 운영의 체제에서 교과 간 연대와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음악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방법적인 면에서 수행되지 못하면 ‘즐거운 생활’이 통합교과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고, 지금처럼 “놀이를 하면서 ‘지금-여기-우리 삶’을 즐긴다.”는 방향으로 교과의 성격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의 논점은 독일의 사례처럼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통합 교과서를 개발하고,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연구하는 등의 세계적인 흐름과 동향을 수용하자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지향점과 통합의 원리와 운영에 관한 냉철한 성찰과 학문적 실천으로 초등 교과 저학년의 음악 교과 재기(再起)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다음으로 이동희 교수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교육과정의 변화 되어감에 따라 음악 교과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국악 내용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살폈다.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 경희대학교 교수

국악 내용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위하여 ‘즐거운 생활’에서 국악 내용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즐거운 생활 교과서가 처음 등장한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내용을 살펴봄에 국악 용어 및 표기 방법이 통일되지 못하거나,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악곡과 활동이 수록된 문제들을 꼼꼼하게 지적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즐거운 생활’ 교과서에 수록된 30개의 국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시 불충분한 음악적 요소, 국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 특정 영역에 의존하는 악곡의 편중 현상, 정확하지 않거나 위계에 맞지 않은 제재곡과 활동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발표는 음악교육의 자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통합교과로서의 음악 교과는 국악과 관련한 핵심 내용과 기초적인 정보가 생략된 채로 제시되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국악의 특성, 지역과 사회, 역사와의 맥락 등을 포괄하여 진정성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세 번째 발표자 김은주 박사는 통합교과에 따른 현행 초등학교 1~2학년의 음악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음악교육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통합교과에 따른 음악 수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김 박사는 통합교과가 교과와 교과 간의 병합 및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어 제7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활동 중심의 주제에 의한 통합적 운영을 추구하는 ‘주제 중심 통합’을 지나,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심사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교과 내용을 학습하도록 변화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과 교사에 따라 학습 내용의 종류와 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통합교과에서 음악 수업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1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활동이 부족한 채로 통합교과의 ‘주제’를 나타내는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음악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채로운 음악 활동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수준과 위계에 따른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통합교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24년 춘계 학술 세미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 내의 음악 교과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통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통합교과로서의 음악 교과에 음악적 요소가 충분히 녹아든 음악 교과서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삶과 연계된 음악적인 경험을 담보하는 교과로서의 복귀에 대한 제안도 응원하는 바이다. 현안에 대한 ‘직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의 논의가 실효성 있는 학술적 성과와 실천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